**<시진핑 외교, 지속과 변화의 이중주>**

**유상철(劉尙哲) 중앙일보 부국장·전 중국연구소장**

중국의 5세대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시기의 키워드는 중국꿈(中國夢)이다. 시진핑 시기의 외교 또한 이 중국꿈 실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중국꿈이라는 말은 시진핑 시대의 유행어이지만 그 중국꿈이 좇고 있는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의 3대 목표는 역대 모든 중국 지도자가 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중국 외교는 중국 지도부의 세계 정세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이라는 패턴을 보인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세계의 흐름을 전쟁과 투쟁이라 보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전쟁이 필요하다며 이에 맞춘 외교 전략을 수립해 온 반면 덩샤오핑(鄧小平)은 시대의 흐름을 평화와 발전이라 파악하고 조용히 힘을 기르자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방침을 선택했다. 중국 외교는 즉 시대의 발전에 발을 맞춰 변화하는 여시구진(與時俱進)의 역사를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시진핑은 이 시대의 정신을 평화와 발전이라고 보는 측면에선 덩샤오핑 이래의 중국 지도자들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시진핑 시기의 중국 외교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된 국제적인 환경 조성을 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즈음해선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를 달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을 전후해선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며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시진핑과 역대 중국 지도자 간의 외교에 강한 지속성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꿈을 이루기 위해 중국 외교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어떤 태도로 임하며, 또 수단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가 등의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선 시진핑 시기의 특징이 드러난다.

우선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초점은 미국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외교의 가장 큰 도전이 미국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선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논리가 유행한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부응이라도 하듯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하고 중국과 관련된 아시아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는 중국과 분쟁을 빚는 어떤 나라든 지원하겠다는 인상을 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 동해에서 벌어지는 일본과의 마찰, 중국 남해에서 일어나는 베트남 및 필리핀과의 분쟁 배후에는 모두 미국이 개입돼 있다고 본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미국의 의지 결여를 의심한다.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 미군이 배치하려는 싸드(THAAD)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입장 역시 미국의 의도에 대한 중국의 의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시기의 외교 초점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 외교는 흔히 4개의 축을 중심으로 굴러간다고 한다. 대국외교, 주변국외교, 개도국외교, 다자외교가 그것인데 이 모두가 미국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국외교 상대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 둘을 꼽을 수 있다. 시진핑은 미국과의 대결 상황을 의식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된 뒤 가장 먼저 찾은 나라가 러시아다. 현재 중•러 관계는 밀월기를 구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 건설을 말한다. 불충돌, 불대항, 상호존중, 협력공영(合作共嬴)의 네 가지가 중요 내용이다. 여기서 중점은 서로의 핵심이익을 상호존중 하자는 것에 두어진다.

주변국외교는 기존의 이웃을 선하고 동반자로 대한다(與隣爲善 以隣爲伴)는 정책과 목린(睦隣)•안린(安隣)•부린(富隣)의 삼린(三隣) 정책을 계승하는 바탕 위에 이웃 국가를 친하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는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새로운 네 글자 방침을 추가했는데 이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주변국들과 손 잡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개도국외교에서도 미국과의 대결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시진핑은 지난 7월 브라질 등 미국의 뒤뜰로 여겨지는 남미 4개국 순방을 통해 그러잖아도 감소되고 있는 미국의 남미 영향력을 한층 더 약화시켰다. 이는 지난 4월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섰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본에서 중•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말한 데 대한 대응적 성격이 짙다.

다자외교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상호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시진핑은 기조 연설을 통해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를 역설했다.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이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시진핑의 외침은 아시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시진핑 시기의 외교는 한 마디로 중국의 굴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인식되는 미국을 겨냥해 어떻게 미국의 견제를 제어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과거에 비해 보다 공세적(assertive)으로 변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중국 외교부가 만드는 잡지 세계지식(世界知識)은 중국 외교가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主動作爲)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또한 “중국 외교가 세계 규칙의 추종자에서 세계 규칙의 제정자로 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한 대학을 시찰할 때 공격적인 바둑을 두는 학생을 보며, 중국 외교가 이 학생의 대국 스타일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시진핑이 공격적인 외교를 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설명해 준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 외교는 장쩌민(江澤民) 시기의 할 일은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 또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의 세계와 조화롭게 발전한다는 조화세계(和諧世界) 주장에 비해 훨씬 더 공세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과거 서방이 제기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이 평화적인 부상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대의 공격이 있은 뒤 이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국이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 건설 제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시진핑 시기엔 경제와 매력이 주요 외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쩍 커진 중국의 경제력은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은 물론 개도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의 태도까지 좌우하고 있다. 특히 주변국외교의 친•성•혜•용 4개 방침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중국 부상의 혜택을 주변국가들에게도 미치게 하겠다는 ‘혜(惠)’이다. 이는 상당히 유혹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이와 함께 빼어난 미모와 친화력을 자랑하는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를 활용한 퍼스트 레이디 외교, 그리고 중국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공공외교 또한 중국의 매력을 십분 활용하는 외교로 주목 받고 있다.

이처럼 미국을 타깃으로 하고 공세적이며 또한 경제적 당근을 제시하는 시진핑 시기의 외교 특징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계획이다. 이는 과거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는 성격을 가지며 또 중국 주도라는 점에서 공세적이고 아시아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AIIB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진핑 시기의 초기 외교는 이와 같이 중국꿈 달성이라는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때 이른 평가를 내려 보자면 우선 미국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내세우는 신형대국관계 건설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미국은 신형대국관계(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ship)라는 표현보다는 신형협력관계(New model of cooperation)라는 말을 선호한다. 아시아 권역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달라거나 태평양이 넓어 미국과 중국이 공유할 수 있다는 식의 중국 요구에 미국이 선뜻 동의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 표시다.

또한 중국이 펼치는 주변국외교와 관련해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친•성•혜•용 방침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중국이 남해 등에서 빚고 있는 갈등을 보며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눈치다. 중국에 언필행(言必行) 행필과(行必果)라는 말이 있다. 말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야 하고 그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시진핑 시기의 중국 외교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할 것 같다. 시진핑은 총명한 사람은 때에 따라 변화한다(明者因時而變)는 말을 자주 한다.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공세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는 부쩍 커진 중국의 국력, 그리고 중국인들 사이에 전례 없이 크게 자리 잡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다. 관건은 이처럼 공세적으로 펼쳐지는 중국 외교가 과연 제3국에 의해 얼마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이에 따라 시진핑 시기의 외교 성패 또한 갈릴 것으로 보인다.